



농정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 축산관계 단체들도 정비될 듯 —

최근의 일간 신문을 보노라면 농정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다.

과거에는 국제경쟁력이 낮아서 국제가격보다 1.5배 이상 비싸면 수입하고, 물량이 부족하면 수입하는 정책으로 쇠고기·돼지고기·계란분말·분유 등의 축산물에 수입되어 축산업자들이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었다.

지난 19일 전대통령은 농수산부 장관으로부터 농정 개혁안과 농수산부 주요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특히 우리 축산인에 고무적인 것은 쌀 등 주곡외의 농산물 수입을 억제하고 쇠고기가 모자라면 돼지고기나 닭고기로 대체하고 마늘이나 고추가 모자라면 그런대로 내핍해서 그 해를 넘기는 적극적인 절약생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그간 우리 업계에서 기회 있을때마다 당국에 요망하던 숙원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다음은 농수협 기구의 대폭 축소와 함께 농협에 특수 조합으로 있던 축산협동조합을 비롯한 축산관계 기구와 축산진흥회를 통합하여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를 신설하고 국립축장 축산시험장 가축위생연구소등의 기구도 농촌 진흥청에서 분리하여 독립된 기구로 통합하는 계획이다.

이번 정부가 밝힌 농정개혁 방안은 그동안

소외되었던 농수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다시 보여 준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1. 농수협 및 축산관계 기구의 대폭 개편
2. 유사도매시장 정비등 유통구조 개선
3. 통계의 전산화와 신뢰성 회복
4. 영농 후계자의 양성 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축협을 농협에서 분리한 것은 축산물을 이제까지의 부식 수준에서 하나의 식량수급정책으로 격상시키는 기초가 되게 된 점이다.

현재 축산업 협동조합 중앙회 사무국이 축진내에 설립되었고 국립중앙회 법안 초안이 이미 완성되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새로 발족되는 축협 중앙회는 현재의 농수협과 같이 여수선 업무는 물론 산하에 축종별로 협동조합이 구성될 것으로 알려져 양계의 경우 경기의 몇개 군에만 한정된 서울경기 양계 협동조합 같은것이 전국 단지 별로 형성 됨으로써 법의 보호를 받으며 생산자가 공동판매 공동구매를 하여 유통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도 있게 되었다.

앞으로 축협 중앙회가 축산업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고 축산업자 위에 군림하는 조합이 아닌 축산업자에 대한 봉사체제로 축산업자의 불만과 어려움을 거리감 없이 혼연일체로 해결해 나가는 조합이 되기를 전국의 축산업자들은 고대하고 있다.